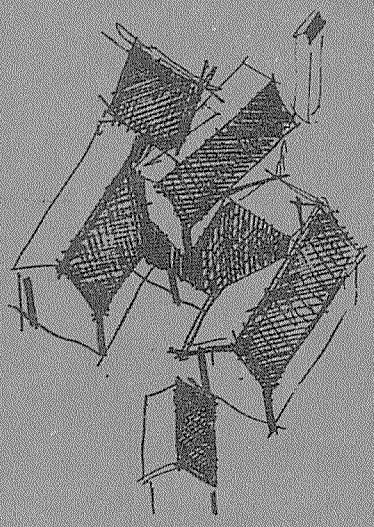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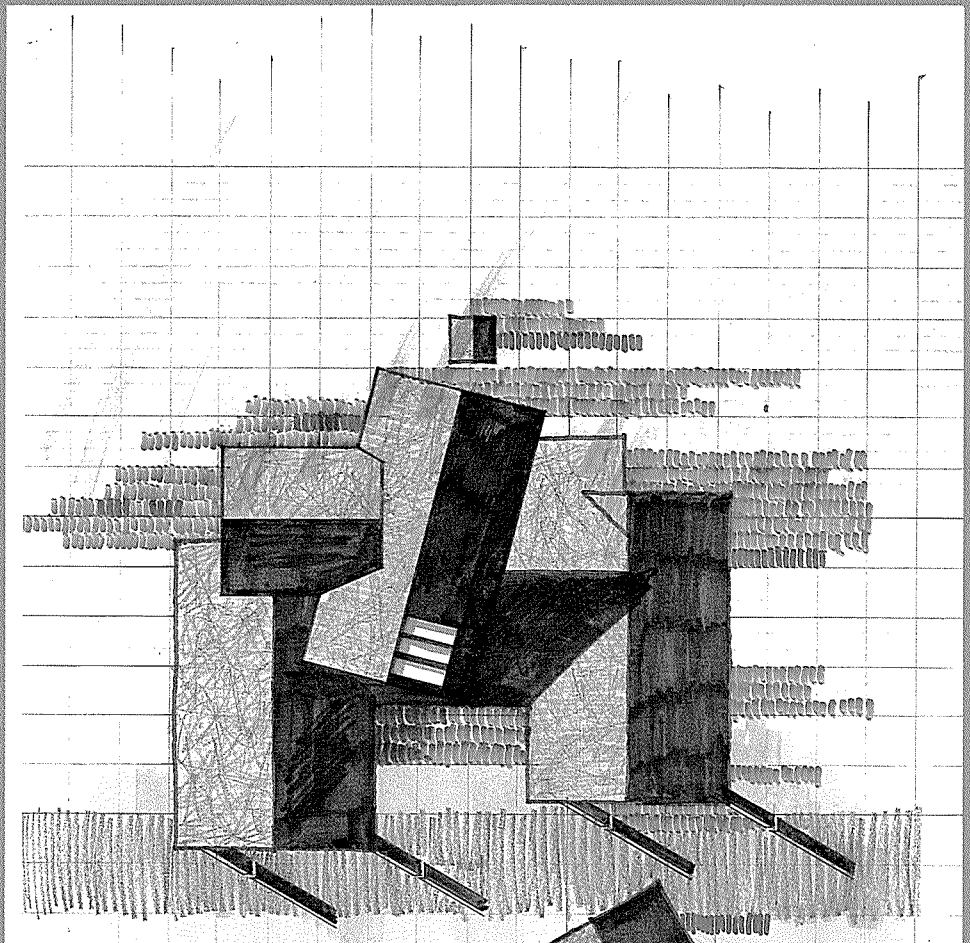


SOLSTICE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Chul



뒀

언덕위에는 소나무가 무리져 서있고,
발이랑 넘어 은행나무가 열매를 달고 있는 평범하거
만한 시골의 풍경속에 그림을 그린다.
앵앵거리는 매미소리와 황소의 하품소리가 날파리의 붕붕거림으로 섞이어 들어 귓속의
이명처럼 친숙해진 맑은 공기속에 투명한 파장을 띄운다.
하짓날 띄약벌아래 터파기 말뚝을 박고 들어올린 수박의 내음이 거름씩는 냄새쯤이야
아랑곳 없다. 가을을 맞고 있는 들판을 지켜보는 해가린 손등에 잠자리가 앓을듯하다
날아 오른다. 해긴날 하지에 터파놓은 흙더미에 쭈그려 앉아 흙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묵은 흙냄새에 취했는지 어느새 꿈인듯 가을서리까지 맞고 말았다.

팔십구년 시월 스무날 하저리에서

